

# 소통하는 세계음악 축제의 장

사단법인 더문화, 문화공간 이룸서 10일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MES FESTIVAL' 개최

사단법인 더문화의 MES(Mingle-Enjoy-Share) FESTIVAL이 10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문화공간 '이룸'에서 열린다.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MES(Mingle-Enjoy-Share) FESTIVAL'은 2022년 사단법인 더문화에서 주최, 주관하는 공연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예술을 누릴 기회가 적은 다문화 가정도 이번 공연을 통해 풍부한 문화향유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MES FESTIVAL'을 통해 다문화 가족이 지역주민과의 문화적 공존을 통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범 사례 구축을 목표로 하며 우리의 전통문화와 다양한 국적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고향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세계음악 축제를 개최하여 함께 어우러지고(Mingle) 즐기고(Enjoy) 나누는(Share) 축제를 만들고자 한다. 다양한 나라의 민속음악이나 유명한 곡들을 추천받아 편곡하여 지역주민 및 다문화 가족과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세계음악 축제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MES(Mingle-Enjoy-Share) FESTIVAL'에는 클라리넷 교수가 '김장배' 교수의 진행으로 '인문밴드 레이'가 연주를 맡아 출연한다. 인문밴드 레이의 리더이자 기타리스트 '이성욱', 강사를 겸하고 있는 드러머 '정명준', 여러 밴드의 베이스를 맡고 있는 '정효준', 그리고 미스트롯에 출연해 올하트로 본선진출을 한 바 있는 '이소윤'이 '인문밴드 레이'의 멤버로 이번 공연에 선다.

사단법인 더문화는 2020년 8월에 설립되었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MES FESTIVAL 포스터

으며 도내 지역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획과 참여로 지역의 예술가들의 활동과 지역민들의 문화향유, 창조,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현재 전라북도 내 다양한 다문화가정이 존재하지만, 기존의 지역민과 융화되고 지역 생활과 문화에 적응하는 데에는 일부 어려움이 있어 사단법인 더문화에서는 이번 'MES FESTIVAL'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 이해 및 공감대 형성, 소통과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이 공연은 전북도 내에

거주 중인 다문화가정과 외국 이주민, 또한 전북도민까지 모두가 국적이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사단법인 더문화에서는 이번 공연을 통해 단순히 다문화 편견을 감소시키려는 개념을 넘어, 전주시에 정착한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들에게 다양한 문화에 대한 감수성 함양을 위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마련하고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또래들 간의 갈등을 감소시키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문화적 갈등, 사회의 편견과 차별로 인한 자녀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민과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높일 수 있으며 다문화가정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역민과 사단법인 더문화가 함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어, 다문화 가족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지역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음악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도 일반적이지만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단법인 더문화의 이사장은 "이번 'MES FESTIVAL'을 통해 지역민들과 다문화가정, 외국 이주자 등 국적 불문 모든 이가 다함께 소통하고 문화를 나누는 세계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며 "지역민과 다문화 가족이 함께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남녀노소 모두 다채롭고 새로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양은경 기자

# 결식아동 위한 '사랑나눔 공예육선'

전주공예품전시관, 10일 행사 진행... 경매 수익금 전액 기부

전주공예품전시관은 오는 10일 '2022 사랑나눔 공예육선'을 진행한다

'사랑나눔 공예육선'은 경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 결식아동에게 따뜻하고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행사다.

이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8인(전주공예품전시관 임업 장인)은 모금을 위한 경매작품 기부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기부작품은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5호 윤규상 우산장의 지양산 △제50호 최대규 전주나전장의 나전옷칠수저세트 △제51호 이신일 전주낙죽장의 매화선 △제43호 이종덕 방짜유기장의 유기작품접시 △제58호 김중연 민속목조각장의 원앙세트 △제10호 엄재수 선자장의 합죽선 △제61호 김선에 지승장의 옷칠잔세트 △제53호 안시성 부귀리용기장의 차항아리 등 총 8종이다.

경매에 출품된 공예품 중 감정가가 가장 높은 작품은 '지양산'으로 40만원에 달한다. 경매 시작가는 모두 5만원으로 감정가보다 최대 80% 낮춰진 금액이다.

또한, 낙찰자에게 지급되는 '사은품 증정 이

벤트'로 경매의 열기가 더해질 전망이다. 경매 참여자는 자신의 입찰가에 작품을 구매하는 기쁨과 동시에 시중가 5만원 상당의 사은품을 증정받게 된다.

특히, 낙찰 받은 작품 수가 가장 많은 참가자 '지름신'과 경매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응찰에 참여한 '구매왕'을 뽑아 30만원 상당의 '부귀도 족자'도 증정할 예정이다.

경매는 현장 경매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한 온라인 경매가 동시에 진행된다.

김해원 공예문화산업진흥장은 "이번 행사는 공예문화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행사"라며, "결식아동을 위한 모금 활동인 '2022 사랑나눔 공예육선'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사랑나눔 공예육선'은 이날 오후 2시 전주공예품전시관 오복대 전통정원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공예품전시관 홈페이지(jonjucraft.or.kr) 또는 공예산업팀(063-281-1610)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완주군, 여행스케치·씨니힐과 함께하는 가을 콘서트 15일 연다

완주군에 여행스케치와 씨니힐이 찾아온다.

8일 완주군은 오는 15일 오후 5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여행스케치와 떠나는 가을 힐링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한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포크 록밴드 여행스케치와 4인조 여성 그룹 씨니 힐의 멤버 2수가 올 가을 완주군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한다.

여행스케치는 '별이 진다네'를 타이틀 곡으로, 1집 앨범을 포함하여 1990년 2집 '추억여행'에서 1997년 6집이자 베스트 앨범인 '처음

타는 타임머신'에 이르기까지 스테디셀러 앨범을 연이어 내놓으며 방송보다는 소극장 무대의 라이브 콘서트를 통해 음악 실력을 인정받은 가요계의 선두주자로 꼽힌다.

씨니 힐의 은주는 4인조 걸그룹의 멤버 리드 보컬로 '두근두근', '들었다 놔다' 등 학창시절 들던 추억의 노래로 잘 알려져 있다.

이번 공연은 완주군이 주최하고, 전라북도가 후원하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이다. 공연 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원주=이종복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사회적 가치 활동 강화 임직원 간담회 가져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 7일 ESG경영전략 수립 준비의 일환으로 임직원들의 사회적 가치 책임실천을 강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지 재단의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MZ세대 직원들과 경영진이 함께 모인 자리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재단에서 진행해 온 사회적 가치 활동의 사례를 공유하고 직원들의 실천과제를 점검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발전하기 위한 재단의 전사적 추진을 도모했다. 특히, 사업 목표를 ESG 관점으로 전환하는 등 재단 운영 4기의 시작과 함께 본격화 될 ESG 경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재단이 도민의 시선에



맞추고 공공의 이익에 기여해 ESG 경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연구팀(063-230-7431)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 14일 개최

(재)전라북도 콘텐츠융합진흥원(원장 최용석)은 오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전북콘텐츠코리아랩 콘텐츠 창업 토크콘서트(이하 토크콘서트)'를 전주대학교, 전북지역 창업보육협의회와 공동주관하여 전주대학교 JJ아트홀에서 개최 한다고 밝혔다.

토크콘서트는 도민과 콘텐츠 인플루언서 간의 소통을 통해 전북지역 콘텐츠 창업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문화혁신 프로그램이다.

참여자 모집을 위해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www.jonbukcdl.or.kr) 누리집에서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당일 현장 접수 또한 가능하다. 또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함께 만들어가는 토크콘서트는 유튜브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채널을 통해 온라인 참석이 가능하다.

진흥원 최용석 원장은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창작자들이 콘텐츠 인플루언서와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콘텐츠 창작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지역 내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라북도 콘텐츠코리아랩의 다른 사업으로는 창업 사무 공간 지원, 콘텐츠 창작·창업 아카데미, 콘텐츠 창업 사업화 지원, 콘텐츠 창업 캠프, 콘텐츠 분야 시장관로개척, 투자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라북도콘텐츠코리아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